



무어 스님은 조계사에서 <안아심경> 강의를 듣고 발심해 26살에 오대산 상원사에서 화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6년 이후부터 상원사 동화사 송광사 관음사 해인사 등 제방선원에서 20여년 동안 수행했으며, 칠불사 망월사에서 선원장을 지냈다. 1988년부터 문수산 축서사에 주석하면서 명실공히 참선도량으로 일구어 놓았다. 조계종 초대 기초선원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운영위원으로서 선의 대중화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법당 밖에서도 일류 되세요”

문 수산 축서사로 가는 길은 짙은 안개 속이었다. 두터운 안개 속에 묻혀있는 아슬푸레한 길을 걷는 것은 허공에 발을 내디디는 느낌이었다. 절 안에 들어서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선계에 들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일으켰다. 무어 스님은 먼길 오느라 애썼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신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스님의 눈빛에 압도되어 궁극한 것이 많다고 하였던 무어 스님 그리 궁금한 것이 많았나 해서 우선 차부터 마시자고 하신다. 점심공양을 하고 난 후에 스님은 티타임을 즐기신다. 거품 가득한 카푸치노의 부드러운 향이 코끝에 맴돈다. 방안 사물 위에 내려앉은 고요함이 커피 잔 속에도 녹아있는지 내 안에 고요가 깃드는 듯하다. 축서사에서는 올 1월부터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참선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참선 법문과 함께 무어 스님으로부터 직접 점검과 인가를 받을 수 있어 인기 절정이다. 선수행할 하면 세속에서 받는 고통이 줄어드는지 궁금하였다.

몇 십 년 전에 비해서 모든 것이 풍족해진 오늘날의 우리들은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기 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이 틀림없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보다 더 앞서가려는 마음이 자신을 왜소하게 만들고 자신이 본디 가진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다.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게 그리고 욕심을 내어서 살아야만

히 일하다가 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을 하는 데도 게으름과 남이 안 볼 때 놀아가면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분은 발전성이 없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이 당면한 최상의 일이라 여겨 삼매에 들 정도로 열심히 해보세요. 안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얼굴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보통이상이 되리라. 한 번을 하더라도, 하루를 하더라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일상이 곧 수행이요 수행이 곧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신 차리면서 산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선과 기도 중 어느 것이 좋냐는 물음에 스님은 “제일이 수승한 것은 화두 참선이겠지만 참선

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또한 재가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닌가 싶다. 무어 스님은 새벽 1시 반이던 자리에서 일어나 참선하고 경전을 읽는다. 그리고 새벽 예불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평생토록 자신에게 엄격함을 잃지 않았는가 하면, 타인에 대해서는 겸손하면서도 따사롭기만 하다. “절에 오면 그날부터 인성이 변해야 돼요. 큰 변화가 와서 부처님 같은 훌륭한 위대한 분이 되셔야지요. 불자라면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 언행이 바르고 보시도 골잘 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본받을만하다 존경할 만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법당에서는 일류인데 법당 밖에서는 2류 3류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수행하는 분위기 마음 닦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오니 두터운 휘장처럼 드리운 안개가 거짓말같이 사라지고 없다. 어깨동무라도 한 듯 연이은 산들과 푸른 하늘은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개가 사라진 뒤의 풍경이 아름다워 감탄을 하자, 무어 스님은 낱씨가 맑은 날이면 저 산 너머 산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

축서사의 자연 또한 무어 스님의 법문 못지않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무명으로 덮여 있다는 것은 두터운 안개로 뒤덮여있음과 같아 올바른 삶의 행로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무명이 사라지고 지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삶 너머의 삶, 자신의 근원까지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을 드러내었다. 깊고도 구성진 뿔꾸기 울음소리가 가까이서 들린다. 때맞추어 노래하는 뿔꾸기에게 화답을 해야 할 것만 같은데 궁색하기만 하다. 아무 것도 묻지 말고, 스님을 친견한 그 시간만큼 내 업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는지를 물어라'고 응수했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논설위원)

“깨달음을 체험하면 우리의 본성(本性)이란 불생불멸이며 생사란 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사가 돌이 아니고 본성은 영원히 죽지 않고 내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면 생사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느끼는 고통은 사라지게 되지요. 이 사회적 고통은 마음이 어두워서 분수에 넘치는 탐욕심을 낸다든가 마음을 잘못 써서 지나치게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든가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 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요즈음 사람들의 인사가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라고 들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닐 텐데,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

생존할 수 있다는 우리의 생존법칙에 대해 스님은 한마디로 일축하신다. 들끓는 마음을 쉬고 또 쉬어야 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한 듯 사는 것이 수행에도 좋고 인생살이에도 좋단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희망과 포부가 있어 잘 살려고 애쓰고 참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려고 애쓰는 마음이 바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잘 살려고 하는 것과 욕심 부리는 마음과는 달라요. 기도하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인데 아주 절실하게 성심성의껏 하는 것을 말하지요.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생은 공부할 하거나, 집안에서 가사를 하거나 뭐든지 내가 하는 일은 좀 절실한 심정에서 해야 돼요. 그냥 봉급만 타 먹겠다는 생각으로 직장에 가서는 적당

속에 수많은 기도가 다 들어있고, 한 기도 속에 팔만 사천 화두가 다 들어있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여러 가지 수행법을 망라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한다. 무어 스님은 한 평생 부처님을 지향하였기에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럴 경우 부처님은 어떤 마음가짐을 하셨을까’ 하면서 늘 부처님에게 비유하고 부처님을 생각한다. 스님은 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첫째 덕목으로 ‘계행이 없으면 정(定)으로 들어갈 수 없고 지혜가 나오지 못하니 계율정진이 살아있어야 할’을 강조한다. 그 다음으로는 화두를 잠시라도 놓지 말고 수행에 푹 빠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비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수행자에게서 찬바람이 들면 안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수



세상 사람들 하루 10분씩만 정진해도 살만한 사회 될 것 참선 속에 기도 있고 기도 속에 팔만사천 화두 들어 있어

고차원세계의 과학 - 그리고 레이키 -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박희준 회장이 새로이 개설한 홈페이지「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혹은 「www.spiritualism.co.kr」의 회원이 되시면 고차원세계의 실상을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접근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의 참 모습을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회원이 되십시오. 앞으로 계속 기사를 실을 것입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5만원
 - 단체교육은 매월 1회 토요일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 개인교육은 날짜와 시간을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 레이키는 에너지 요법 즉 氣 치료법의 총아입니다.

레이키는 교육받으면 그날부터 능력이 될 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저(박희준)는 1997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레이키 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 카루나 레이키** - 교육비 30만원, 교육기간 1일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음과 에너지를 환부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박희준 회장 약력**
20여년간 건강분야, 불교분야, 정신세계분야의 저술가, 번역가로 활동하여 10여권의 저서와 1백여권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Spiritualism, 윤회전생, 초능력 문제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던 끝에 그 자료들을 인터넷에 공개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www.spiritualism.co.kr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化

상표등록 : 614981호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지민)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자입식 깔창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색상 : 회색, 흑색
• 규격 : 215-290mm (키높이 특수제작)

좋은 점

만행 표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엔 따라 시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자입식 '발바라' 깔창은 특수 항공 실리온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리에 도움을 주는 특수 자입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자입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한용 털신

털 깔창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최고의 선물

※ 보시 하실 분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원광사 051)636-7019 *대구: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김윤경승복 064)724-7999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 (우신위브 맞은편으로 이전)